

■ 서평 ■

Aviva Chomsky, *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 (Beacon  
Press, 2014)

김헌기

1980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와 전지구화의 흐름은 자본과 노동의 전지구적 이동을 초래했다. 자본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함에 따라 더 이상 국내 자본과 국외 자본의 구분이 어렵게 된 한편, 노동의 이동 또한 활발해져서, 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활발한 현상 뒤에는 전혀 다른 두 방식의 대응이 있다. 자본의 이동은 최대한의 운동성을 보장받는 반면, 그에 따른 필연적인 노동의 이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가해진다. 또한 노동의 이동, 즉 이민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폭증하고 있다.

아비바 촘스키의 책 『미등록이주자: 이민은 어떻게 불법이 되었나(Undocumented: How Immigration Became Illegal)』는 미국 이민을 둘러싼 위와 같은 현재의 정세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을 논하고 있다.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법성(illegality)이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범주가 아님이 드러난다. 그녀에 따르면, 오늘날의 불법성은 1965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정복 이래로 사람들을 조직하고 범주화하는 주요 원칙은 항상 변해왔다. 먼저는 종교를 통해, 그리고는 혈통/인종을 통해, 마지막으로는 바로 불법성과 관계하는 국적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과 한 사회에서 자원에 접근할

권리가 제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 범주의 변화과정은 어느 한 범주의 폐기에 이어 어떤 신설 범주가 등장하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국면에서 여러 범주 가운데 하나의 범주가 우세하게 재편성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는 국적이 지배적인 차별 범주로 기능하고 있지만, 종교와 혈통/인종 또한 복합적으로 그 차별의 작동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 책의 1장은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의 이동성 제한과 불법성 범주의 구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를 논한다. 서구 기독교의 최전선이었던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콘키스타(Reconquista) 이후, 종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이동성의 차등을 설정하는 중심범주였다. 비기독교인은 축출과 제한의 대상이었고, 오직 기독교인만이 교회의 전파와 정복을 위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되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정복과 이주에 의해 발생한 에스니시티(ethnicity)에 근거하여 차별과 배제가 행해졌다. 이러한 인종/혈통에 근거한 차별은 국적을 근거로 한 이동성 또는 이민 제한의 국면에서도 살아남아 이제껏 그 영향력이 소멸되지 않았다. 1960년대 미국에서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인종과 같은 선택할 수 없는 개인의 속성으로 인한 차별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적에 의한 차별, 구체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에 속해 있는 인민들과 가난한 나라에 속해 있다가 미국으로 돈을 벌러 오는 인민들 사이의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2장에서는 중미 지역 출신으로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의 미등록이민자가 된 이들의 기원을 짚어나간다. 미국 이민은 노동의 필요에 따라 수 세기간 계속되었다. 이민이 불법적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멕시코인들은 철도 건설과 미국의 계절노동 수요의 부침에 따라 자유롭게 미국의 국경을 넘나들었고, 때로는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같은 노동 이주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60년대 이래로 ‘국경이 멕시코인들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의 자유로운 월경이 금지되었고, 미국 내에 머무는 체류허가증 없는 멕시코인들은 미등록이주민이 되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 후에 불법화되어가는 경로가 3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 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입국 심사 없이 미국에 들어오거나 한시적인 체류증을 가지고 입국하였다가 시효가 만료되면 불법적인 지위에 처하게 된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은 입국 심사 없는 월경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멕시코를 비롯하여 중남미로부터 집결한 월경시도자들은 강도와 살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러한 위협은 1990년대 들어와서 문지기 작전(Operation Gatekeeper)등으로 국경 봉쇄가 강화되면서 더욱 위협적이게 되었다.

4장의 묘사에 의하면, 미등록이주자의 불법성은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법적 틈새”를 탐색하게 한다. 그들의 불법적 상태는 사회복지 사업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며, 노동과 활동을 위해 위조 서류를 이용하게 하여 그들을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불법성은 미등록이주자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뿐인가? 아니다. 그들의 체포는 이민국의 ‘비일관적’ 존재의 이유이며, 사설 구금 시설 산업의 수입원이기도 하다.

5장과 6장에서는 노동 영역을 주시하여 미등록이주자들이 그 불법성으로 인해 종사하게 되는 직종을 알아내며, 그러한 노동이 전지구적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정한다. 1965년 이민법 이후 미국 내 거주 멕시코인들의 지위가 불법화되긴 했지만, 그들의 노동까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미등록이민자들의 제한된 노동 선택과 수행은 그들을 저임금의 비숙련 노동으로 몰아넣었다. 주로 농업, 건설업, 단순 서비스업 등 미국인이 꺼리는 직종에서 자본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등록이주민의 상황의 최종적 원인은 단지 법률인가? 이주의 문제는 사회·정치·경제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로 공급 위주의 경제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시행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깎였고, 제조업이 퇴조하고 서비스업이 부상하면서 미국 내 저숙련

노동력의 수요가 폭증했다. 이 수요를 채운 것이 바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었다. 이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양가적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불법이민을 단속하는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의 유출-이민을 부추기는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이민 행렬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소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인 것이다.

위에서 대략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촘스키의 이 책에서는 불법성의 계보적 분석, 그 사회적 맥락, 사회·경제적 배경이 명료하게 분석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에서는 불법성이 법률적 정의와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제한되어 표상될 뿐이다. 불법성은 법률적 지위뿐만 아니라 그 사회경제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미등록이주민 당사자들이 체험하는 신체적, 감각적,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불법성을 포함한다. 즉 불법성은 법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직접적이고 체화된 경험을 아우른다.<sup>1)</sup> 이러한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까지 분석될 때에 불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지평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orient84@hanmail.net

---

1) 강윤희, 「환영받지 못하는 천국의 시민: 미국 내 인도네시아 미등록 이주민들의 체험된 경험으로서의 '불법성」, 『비교문화연구』 제18집 2호, 2012, 5~51.